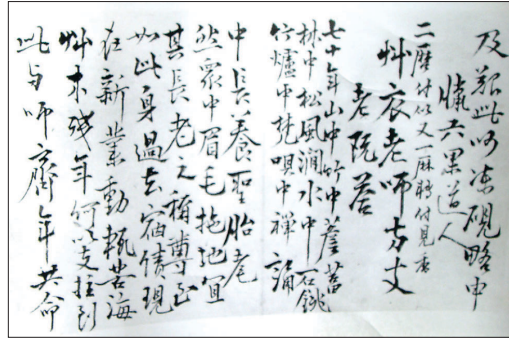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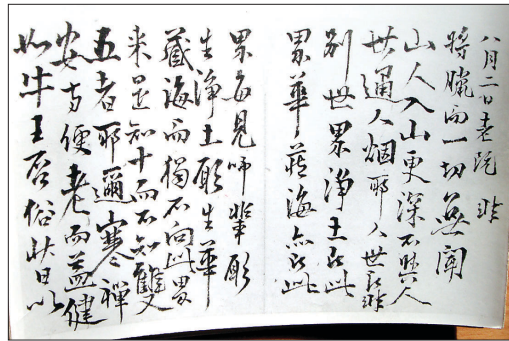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이 세상이 바로 연화장 세계”

추사가 선달이 가까워지는 어느 날인가 초의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편지의 말미에 과도인(果道人)이란 호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천 시절에 보낸 편지임이 분명하다. 선달이 되면 늘 새로 나온 책력을 챙겨 초의에게 보냈던 추사였다. 한동안 이들의 편지를 내왕해 주는 인편이 없었던 지, 추사는 ‘아직 선달이 된 것도 아닌데 일체 소식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소식을 전하지 않는 초의의 변화된 마음은 ‘산으로 들어가 더욱 깊어져서 인간세상과는 함께하지 않고 자연과만 소통하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한다. 이는 추사의 심사를 반영한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대홍사의 깊숙한 암자에서 선삼매에 몰두하고 있는 벗, 초의를 이리 표현한 것이라. 이 무렵 과천초당에서 어렵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던 그는 실로 불경과 차를 통해 정토의 세계를 구현하려했던 것은 아닐까. 과천초당에서 초의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며 보낸 그의 편지는 다음과 같다.



과천에서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2통의 편지.

루가 열어서 대략 알립니다. 선달 6일 과도인. 책력 2개를 부칩니다. 또 책력 하나는 견학(見香)에게 전해주세요(非將臘而一切無聞 山人入山更深不與人世通人烟耶 人世即別世界 淨土即此界 華藏海亦此界 每見師輩 願生淨土 願生華藏海而獨不向此界來 是知十而不知雙五者耶 避寒禪安方便 老而益健如牛王否 俗狀日以及巖 此阿 凍硯略申臘六果道人 二曆付從 又一曆轉付見香)

“벼루물이 얼어 대략 알린다”고 하였으니 분명 한 겨울에 보낸 편지일 것이다. 어지간한 추위에

는 벼루의 먹물이 얼지 않는다. 먹물이 얼어 버릴 정도로 추운 겨울, 초의의 소식이 못내 그리웠다. 특히 그의 불교적 담론은 ‘인간 세상이 곧 다른 세계는 아니다’ 바로 ‘정토 세계가 이 세계이고, 연화장 세계의 바다가 또한 곧 이 (인간)세계, 라고 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분명 인간 세상이야말로 가장 소중하며, 정토나 연화장의 세계로 구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바로 추사의 현세관(現世觀)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초의를 향한 추사의 질타는 이어진다. 초의가 속한 불교계에서는 정토나 연화장 세계만을 동경할 뿐 인간 세상이 정토이며, 연화장 세상인 것을 모른다. 바로 십이인십(十)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섯이 들어면 열이 된다는 이치를 모른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 후기 불교계가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자신의 견해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편협성과 획일성을 지적한 듯하다. 바로 표면에 드러난 것만 알뿐 속내의 깊은 이치를 모르는 현실을 점잖게 힐난하였다. 한편 늘어가는 이들의 현실은 피할 수 없었던가 보다. 자신과 동년배인 초의의 늙어짐을 못내 걱정하여 ‘늘어지면 더욱 건강해야합니다. 마치 수컷 소와 같은 성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우왕(牛王)은 수컷 소처럼 튼튼하고 기세 좋은 왕(人中牛王)이라 하니 우왕은 부처님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자신도 초의도 이미 늙어가지만 모두 건강하기를 기원하는 추사의 마음은 이처럼 간절하고도 애뜻했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아직 선달이 된 것도 아닌데 일체 소식이 없으니 산사람은 산으로 들어가 더욱 깊어져서 인간세상과는 함께하지 않고 자연과만 소통하려는 것인가요. 인간 세상이 곧 별세계는 아니다. 정토세계가 바로 이(인간) 세계이고, 연화장 세계의 바다가 또한 곧 이 (인간)세계입니다. 매년 그대들은 보편 정도에 살기를 원하고, 연화장세계의 바다에 살기를 원하여 다만 이 세계로 향하지 않으니 이는 십만 알고(심)다섯의 쌍이 된다는 것은 모르는 것인가요. 요즘 추워지는데 수행은 편안하고 편리한지요. 늘어지면 더욱 건강해야합니다. 마치 수컷 소와 같은 성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요즘 날로 괴로움이 타치지 이에 깔겄 웃지요. 벼

“유·무형 불교문화 사랑 보현행원으로 회향”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

1월 25일 동해 삼화사에서는 1000여 명이 참석한 대형 기념법회가 열렸다. 지난해 삼화사 수륙재의 중요무형문화재 등재를 기념한 축하 법회였다. 각계의 수많은 이들 사이에서 호응하게 법회를 바라보는 반백의 신사가 있었다. 바로 홍윤식 동국대 교수다.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는 역사교사를 지내던 1960년대부터 불교문화재 전반에서 활약해왔다. 전문학자가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던 홍 교수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한 원력은 바로 불교문화에 대한 사랑이었다.

서른 초반 학교 선생님의 불교 사랑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문화재에 대한 관심은 극히 희박한 상태. 사적지나 문화유물에 대한 관리는 정부에서도 과다위에서 관리할 뿐이었다. 동국대 사학과를 나와 1960년 국악예술학교에서 역사교사로 있던 홍 교수는 문화유산을 조사하는 보조자로 참여하게 된다.

“당시 국악예술학교는 음악과 예능 전반의 무형문화재 발굴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사라져가고 있던 민속예술을 되살리는 그 노력이 지금도 눈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당시 박헌봉 교장선생님의 배려로 문화재 조사 보조자로 참여하게 됐는데 이 참여가 이후 저의 한평생을 문화재와 더불어 살게 된 계기가 되었죠.”

홍 교수는 불교문화재에 대한 관심은 우리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승무나 탈춤, 각종 민요 등 민속 예술의 대부분은 불교적 소재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역불승유 시대를 거치며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왜곡된 상황이었다는 점이 있었어요.”

홍 교수는 “당시 황수영 박사를 비롯한 수많은 학자들이 불교문화재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섰어요. 하지만 유형문화재에 국한되었죠. 무형문화재의 기능은 기성이나 광대 등 천한 신분에게 전승된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었다”고 말하며 ‘무형문화재의 가치 인식’과 ‘천인들에 의한 전승’이란 화두가 계속됐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학교 선생님으로서 승무의 마지막 부분을 파계승의 행각이란 불교에 대한 풍자로 해석하는 흥분을 뒤집는다. 승무가 파계승의 춤이 아니라 법율을 느낀 선전에서 우리나라는 몸짓이란 새로운 해석이었다.

잊혀진 불교문화재 ‘법패’를 조명하다

홍 교수의 이러한 행보는 자연스럽게 당시 규정되지 않았던 불교음악인 ‘법패’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불교정화 이후 법패와 같은 소리를 하며 재의식을 하는 것은 무당들이 하는 것과 같다고 하여 이를 금기 시 하고 있었습니다. 일제의 사찰령에 의해 절에서 법패와 의식무용을 하는 것도 금지돼 이미 인멸돼 가고 있었죠. 후에 불교신론 주필을 한 유영 선생을 만나 신촌 봉원사에서 송암 스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법패와의 만남은 시작됐죠.”

홍 교수는 송암 스님에게 직접 법패를 듣고 대화를 하며 법패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매일 같이 전국을 다니며 소리를 녹음해 기록하고 한편으로 법패와 불교의식의 작법에 대한 자료를 구술로 채록해 자료화해 나가는 작업을 계속했다”며 “이 같은 내용이 1964년 불교신문을 통해 발표되기 시작하며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를 통해 법패는 마침내 한국전통음악에서 판소리, 가곡과 함께 성악의 3대 요소로 완전히 자리잡게 된다.

홍 교수의 이러한 활동은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법패가 우리 전통문화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이 학계에 알려지며 관심이 쏠렸지만 학문에 초년병인 홍 교수는 이를 감당하기 힘들게 된 것이다.

“서울대 이혜구 교수, 한민영 교수, 국립국악원 성경린 원장 등이 법패의 무형문화재 지정과 연구에 본격 참여합니다. 교사 신분인 나 한사람으로서 법패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의견을 낼 형편이 못됐어요.”

하지만 홍 교수의 법패에 대한 정열은 멈추지 않았다. 홍 교수는 법패가 종합예술이기에 음악적 연구 뿐만 아니라 종합적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서울대와 국립국악원 측 입장과 견해가 달랐기에

방법론 등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홍 교수는 TV등의 토론회 등에 나서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간다. 그 중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전승돼 온 팔공산 소리의 발견은 문화재계의 큰 성과였다.

“조사를 활발히 진행하며 급정산 국청사에 갔을 때였습니다. 김은공 스님이었는데 단숨에 뭇소리를 유연하게 뽑아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경산소가 경쾌하다면 이 소리는 은은한 감정을 자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과는 주요일간지에 크게 보도됐다. 원력을 가진 활동은 홍 교수에게 큰 영광을 안겨 주었다. 바로 32세에 문화재 전문위원이란 중책을 맡게 된 것이었다. 당시 불교계에서는 봉원사를 중심으로 육천범음연구회가 구성돼 활발한 연구활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홍 교수는 윤학 스님등과 불교문화예술원을 창립해 이러한 활동에 불을 지폈다.

조계종 총무원 과정...성보보존위 기획

법패조사에서 시작된 불교문화에 대한 홍 교수의 관심은 불교의식 전문가로 옮겨갔고, 다시 불교의식의 대상이 되는 불교미술로, 다시 이를 종합하는 종교학과 종교사회학으로 까지 넓혀졌다. 이런 홍 교수의 학문태도를 두고 학계의 비판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었다.

“학문이 주전공이 없는 집합이라는 것이었죠.(웃음) 그러나 지금와서 보면 요즘은 학계가 요구하고 있는 학제적 방법론을 일찍 터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연구방법론은 대학교수가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됐어요.”

학계의 비판과 달리 홍 교수는 문화재전문위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인물이 되고 있었다. 무형문화재 분야 뿐만 아니라 유형문화재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게 됐다. 여기에 당시 조계종 총무원 사회

역사 가르치며 불교문화재 중요성 느껴

‘법패’ 새 인식 주도, 종합 연구 주창

유·무형 문화재 각 분야 만나들어

불교미술공모전·동대 불교미술과 산파

일본서 늦깎이 학자의 길 걸어

“서원세우면 언젠가 이뤄진다”

국장을 맡던 김은학 스님이 홍 교수를 천거해 총무원 문화과장을 겸직하게 된다.

“문제는 시간이었는데 조사연구를 휴일이나 방학 때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어요. 겸직하는 일도 상당히 큰 난관이었습니니다.”

홍 교수는 여러 스님들과 함께 전국 사찰의 유형문화재를 조사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이어 성보보존위원회 구성을 기획했다. 불교문화재관 사회보존팀을 성보문화재단 불교적 개념 하에 수용하자는 것이었다.

단청문양 조사의 시련, 학자의 길 다져

홍 교수의 유형문화재에 대한 관심은 전국 중요사찰의 단청문양을 조사 정리하는데로 이어진다. 문제는 재정과 시간이었다.

“축박한 기간을 독촉해 조사를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었어요. 이 같은 조사사업은 처음이라 언론기관에서 무척 흥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미 보고서를 문화재 관리국에 제출했는데 책임조사연구원이었기에 날짜를 정해 기자회견을 했어요. 당시 주요일간지에 소개가 됐습니다.”

기쁨은 잠깐이었다. 조사가 부실하다는 중앙일보의 지적이 일간지 보도 다음날 보도된 것이었다.

“일일이 모사해야 하는데 밑에서 스케치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에 쫓긴 일부 조사원들이 모사보다 스케치를 택한 것이었어요. 이를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었습니다. 당시 배정받은 예산으로는 3개 사찰정도가 적당했고 기간을 길게 잡았어야만 했음에도 처음엔

불교국 각나라 승가회 대표들의 동참과 적극적인 협조로 세계불교법왕 및 승왕 추대 의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전에 부끄럽지 않는 불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시

각 종단 중정예하 총무원장님들을 법왕청 중앙정부에 모시고자 초대합니다

[2월 18일 화요일 11시 임시 각료회의 개최]

10월2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의 세계불교법왕 및 승왕 추대위원회 출범식을 성대하고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동참해주신 대덕 큰스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정각회 국회의원님들과 불교국가 대사님, 미얀마 연방 정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축하사절로 종교성 부장관의 참석, 연방 승가회 회장스님의 축사, 120여 각 종단 대표 스님들의 동참 그리고 연합뉴스에서까지의 보도 등 전례가 없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세계불교법왕청은 전세계 모두가 공감하여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중정들이 역시 그분이라면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고 추앙받는 불교의 최고의 어른을 선정 추대 하고자 극비밀로 은밀하게 움직여 놀라운 큰 성과를 거두어 출범 일주년 무렵에는 장엄한 국제 추대의식 행사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社團法人 世界 佛教 法王廳
세계불교 고승 및 최고 지도자들의 모임 1080인 委員會
법왕청산하 소속 350여 종단 및 단체 총연합 협의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위원장 대승정 목탁 - 혜은 합장
 02-733-5665, 011-229-6061

<2014년 (불기2558년) 주요 행사>

1. 각료 임명식 : 임명식 행사의 건 의견 청취
2. 출범핵심 각료 선정 (특별대사) : 중국,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일본 등
3. 대외 활동 홍보 및 고유 의식으로 중국 지장도량 및 관음도량 성지순례 및 단합대회
 2014년 5월 9일 지장도량, 관음도량 6일 성지순례 및 임원진 단합대회 개최. 세계불교법왕, 이 회의에서 승왕 추대 명단 확정하고 취임식 준비에 따른 의견 청취. **세계불교 법왕청과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이름으로 고승단 및 임원진 高僧, 대중사 품수 추대의식 봉행. (경비 없음) 선착순 108명 접수
4. 법왕추대의식 및 장소, 법왕청 준비.
5. 1080인 고승단 및 세계불교지도자 **인명 대사전** 발간 (경비없음)

“세계불교법왕청”이란 명칭은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정식 등록 허가된 곳은 목탁스님이 주관하는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뿐입니다.



2001년 '동국대를 빛낸 사람들' 상을 수상하는 홍윤식 교수



1974년 '마한백제 문화연구소'의 미륵사지 발굴조사 장면